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8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PC기능 갖춘 전자출판시스템 개발

1987년 8월 14일자 인쇄신보는 국내업체가 개인용 컴퓨터와 레이저빔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전자출판시스템을 소개했다. 한국컴퓨터기술(주)(대표 전인수)에 의해 개발된 '수퍼라이더 APS-100' 이 바로 그것.

신보는 당시 회사 관계자의 설명을 빌려 이 제품에 대해 개인용 컴퓨터로서의 기능은 물론 CAP(컴퓨터 이용 출판) 및 자동화처리 기능도 함께 갖춘 새로운 차원의 사무자동화(OA)기기라고 전했다. '수퍼라이더 APS-100' 은 IBM-PC AT 호환성 기종과 영상입력장치인 스캐너, 그리고 고해상도의 출력장치인 레이저빔프린터 등 하드웨어와 3종의 관련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문자의 행간, 자간 조절이 자유롭고 문자와 그래픽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져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있는 문서를 간단하게 편집·인쇄할 수 있는 것이 특징. 특히 다양한 서체(한글·한자3종류·영문3종류)와 글자크기를 이용한 문서처리와 비트맵 기법을 활용한 선명한 그래픽으로 고유로그와 심볼제작 등 다채로운 작업을 할 수 있어 기업체나 병원등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시보는 소개했다.

● 두루마리 용지물질 개선을

불량 두루마리 용지를 놓고 이에 대한 품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86년 8월 1일자 인쇄신보는 운전인쇄에 사용되는 각종 두루마리 인쇄용지가 품질은 물론 평량마저도 일정치 않아 인쇄업체들이 작업공정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쇄업계 관계자들은 두루마리 인쇄용지의 품질개선과 관련, 두

루마리 포장지의 무게를 용지중량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용지계산에 착오가 발생, 작업중 용지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업계관계자들은 용지무게만을 표시하고 포장지대금은 용지원가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지회사들에 대해서도 공업규격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부득이 공업규격이 아닌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제품에 평량, 연량, 연수를 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업계관계자들은 또한 두루마리 인쇄용지(중질지·백상지·아트지)는 평량만 표시하고, 연량(kg/연)이 표시되지 않아 같은 평량의 용지도 연량의 차이가 심해 인쇄사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반드시 공업규격에 따른 연량·연수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크리스마스썰 인쇄 민간기업에 맡겨 달라

한국조폐공사에 의해 제작되던 크리스마스썰을 민간전문인쇄업체로 환원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88년 8월 12일자 인쇄신문은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인쇄공업조합 등 관련단체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건의서에서 인쇄단체들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산하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썰 인쇄는 과거 10여년간 민간전문인쇄업체에서 생산해왔던 것인데 지난 1986년부터 품질 및 보안을 이유로 한국조폐공사로 인쇄처가 변경됐다"고 지적하고 이를 민간업체로 환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인쇄단체들은 변경 요구 사유인 인쇄품질과 안보에 대해서도 "지난 1985년 국제항결핵연맹이 주최한 크리스마스썰 경연대회



에서 3위로 입상, 그 수준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으며, 또 보안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10여 년 동안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인쇄처의 변경은 전문인쇄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국산 · 수입 PS판 판매전 후근

1985년 8월 2일자 인쇄신보는 치열해지는 인쇄제판업계의 시장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신보는 수년동안 인쇄제판업계의 PS판 수요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던 국내 생산업체들이 선호도에서 일본등 해외 PS판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PS판 시장에 치열한 경쟁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경쟁열기는 PS판이 제판 기술을 향상시켜 인쇄물의 질적향상을 가져온다는 점외에도 인쇄제판업계의 공해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등 점차 그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

당시 기사에 따르면 국산 · 수입 PS판은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었으나 수입 PS판은 평활도가 우수한 반면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고 1회용이라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반해 국산은 가격에 있어 수입품보다 판 당 5~6백원 정도가 저렴하고, 여러차례 도포할 수 있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수입품에 비해 평활도에서 뒤지고 있다고 소개됐다. 각사 특유의 PS판을 놓고 인쇄제판전문가들은 "어느 회사의 제품이 더 나은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한 것은 인쇄제판업체에서 납품을 받을 때는 가격과 품질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기 때문에 각 업체들이 비수기를 이용한 성수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자동초록시스템 개발돼

사람이 손을 거치지 않고 컴퓨터로 초록을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1993년 8월 28일자 인쇄신문에 소개됐다. 자동초록시스템을 개발한 주인공은 전북대 이태영 교수(문헌정보학). 이 교수는 '한국어 초록 작성의 자동화에 관한 연구'란 박사논문을 통해 자신이 연구한 자동초록 시스템을 이용, 자동으로 초록을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논문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자동초록 작성을 연구한 끝에 컴퓨터에 미리 명사, 부사, 관형사 등의 품사 사전 및 이를 논문 내용과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결과, 중요문장 및 단어를 발췌함으로써 초록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 ● 독일, 재처리상품 포장에 환경마크 부착

포장물 재활용을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물의 표면에 부착하는 환경마크가 등장했다.

1992년 8월 28일자 인쇄신문은 독일이 유럽최초로 환경보호를 위해 포장물 처리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DERGR Ü NE PUNKT' 마크를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마크 부착을 원하는 기업은 독일 DSD사로부터 환경마크 이용계약서 양식을 발급받아 관련내용을 기재하고, DSD사에 계약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은 후 마크부착 포장제품에 독일 내 판매량에 비례해 마크 사용료를 DSD사에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환경마크 사용료는 포장물의 부피 또는 중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포장지의 중량이 3g 미만이거나 부피가 50ml 이하인 포장물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시보는 전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